

經濟發展과 利子 및 利潤에 관한 一考察

—古典學派理論을 中心으로—

尹 埴

<目 次>	
I.	序 言
II.	經濟發展과 利子率
III.	利子率과 利潤率
IV.	經濟發展과 利潤率
V.	政策上的 諸問題
VI.	結 言

I. 序 言

資本主義的 經濟發展은 利潤追求를 基本動機로 하는 企業의 生産的 活動에 緣由한다고 볼 수 있으며 企業의 投資를 위한 資本需要는 資本의 限界生産力 내지 資本의 限界效率과 利子率과의 對比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아 진다.

本稿는 經濟發展과 利子 및 利潤사이의 相關關係를 考察해봄으로써 經濟發展의 要因을 찾는 데 參考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充分한 研究가 不足함에도 그 理由가 있으려니와 本稿에서는 주로 17世紀中葉에서 19世紀中葉간에 있어서의 英國을 中心으로한 諸論議를 爲主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重商主義的 見解와 古典學派理論을 檢討해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論議가 갖는 意義는 經濟學史的 面도 있겠지만, 그 期間이 英國의 經濟發展에 있어 資本主義形成의 初期段階로서 經濟發展段階로 보아 現在의 韓國과 類似性을 갖는 것이어서 現實的으로도 參照될만한 論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利潤率에 관해서는 Keynes의 『一般理論』에서 資本의 限界效率이 長期的으로 下落된다는 點을 論議하였고 A. H. Hansen도 그러한 論議와 關聯하여 停滯의 問題를 論及하였으며 J. R. Hicks도 資本의 限界效率遞減의 基本法則이 갖는 重要性을 注目하였던 바 이들은 資本主義經濟發展의 長期的 停滯論과 關聯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古典學派利潤理論을 經濟發展과 關聯하여 考察해 보는 것은 資本主義經濟發展의 一般的 理論를 理解

하는 데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II. 經濟發展과 利子率

16世紀後半에 英國은 法으로써 最高利子率을 規定하기도 하고 때로는 利子禁止政策을 實施하기도 하였지만 法定利子率은 1545年의 年 10%에서 1714年의 年 4%로 繼續 下落되었다. (1) 이와 같은 法定利子率은 市場利子率의 一般的 水準이 下落되는 傾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편 17世紀後半의 數年間에 있어서는 市場實效利子率이 法定最高水準보다 낮았던 것 같다. (2)

1660年代의 英國經濟는 內亂後 商人들이 海外市場에서 더욱 심한 競爭을 겪게되었기 때문에 收益性이 減少되었다. 다른 國家들은 英國에 比해 自國貿易을 더욱 獎勵하고 他國貿易을 沮止시켰던 것이다. 한편 短期的으로 보아 더한층 重要的 事實은 1665—1667年間に 일어난 戰爭 疫病 및 火災 등인 바 이로 因해 地代가 下落하였을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地主들은 보다 낮은 貸付利子率을 誘因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1667年은 地主들의 所得중 比較的 많은 部分이 課稅되었던 해였기도 하다.

한편 和蘭은 英國보다 利子率이 낮았기 때문에 外國貿易에 있어 商人들은 훨씬 有利한 立場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3)

이와같은 狀況에서 當時 老 Thomas Culpeper 는 經濟發展을 交易增大라는 見地에서 보고, 高利子는 商業을 沮止시키고 安逸 無事의인 貸金業을 助長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利子는 富를 生産者로부터 懶怠한 高利貸業者에게 移轉시키는 것에 不過한 것이며 其他의 諸經濟事業을 沮止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利子率이 下落되면 英國에 대한 外國의 投資가 減少되겠지만 外國投資는 累積的인 힘(cumulative power)에 의해 利子로써 英國貨幣를 枯竭시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現象이라고 主張했다. 또한 法定利子率의 引下는 國內에서의 借金を 困難하게 하고 商業을 沮止시킬 것이라는 憂慮에 대해서는 借金の 容易性 與否는 國內貨幣의 豐饒 與否에 左右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資本逃避의 可能性은 論議되지 않았다.

(1) G. S. L. Tucker, *Progress and Profits in British Economic Thought 1650—1850*, Cambridge, 1960, p. 8.

(2) T. 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20*(1948), pp. 9—10; H. J. Habakkuk, "The Long-Term Rate of Interest and the Price of Land in the Seventeenth Century" *Econ. Hist. Rev.* second series, V (1951—2), 26—45.

(3) G. S. L. Tucker, *op. cit.*, p. 14.

Sir Josiah Child 도 이와 類似한 論議를 하였는데 그는 英國의 利率이 下落傾向을 보여준 16世紀後期에서 1650年代에 이르는 期間 國富와 商業도 同時에 增大되었음을 注目하였다.

當時 各國別로 利率을 比較해 보면 利率이 낮은 國家는 伊太利나 和蘭 등이었으며 높은 國家는 Spain, Scotland 및 Ireland 등이었는 바 利率이 낮은 國家는 높은 國家에 비해 더욱 富裕했던 것이다.

이들은 利率의 下落이 富의 成長에 있어 原因이기도 하며 結果이기도 한 兩面性을 가진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Child 는 利率下落이 富를 增大시키고, 富의 增大는 利率을 더한층 下落시키지만 이러한 과정은 適切한 法의 仲裁으로써 가장 훌륭히 수행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가 提案한 利率引下가 實行可能하려면 貨幣가 充分히 供給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Thomas Manley 등은 法定利率의 加一層 引下를 反對하였으며, 『*The Brief Observation of. T. C. concerning Trade and Interest of Money, Briefly Examined*』의 著者는 利率을 引上할 것을 主張하기도 했다.⁽⁴⁾ 이들은 高利貸金業者를 擁護하여 그들은 勤勉에 의해 貨幣를 獲得했으며 貸與는 危險을 負擔하게 되고 商工業經營에 必要한 信用을 割當하는 것이어서 貨幣利率은 性質上 土地나 建物에 대한 地代와 類似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Manley 는 法定利率이 下落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法은 지켜지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利率이 生産費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別로 重要하지 않으므로 利率을 引下했다해서 英國商人의 競爭上의 地位가 別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利率보다 高賃金이 더욱 큰 問題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低利率이 經濟發展의 原因이라기보다 結果라고 보았다.⁽⁶⁾

利率의 引下에 대한 反對論은 1690年代初의 Sir Dudley North, John Locke 및 Sir William Petty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利率에 대한 法的 規制가 지니는 正當성과 便宜性を 疑問視하였다. Petty 는 利率을 貸付者가 받아야 할 正當한 報酬라고 보았으며 高水準과 單純利率(simple natural interest) 사이에서 各 證券과 結付된 特定の 危險과 苦痛의 程度에 따라 그들사이에서(inter se) 變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지나간 半世紀를 통해 利率이 下落한 것은 法的 引下때문이 아니라 貨幣量이 增加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지

(4) *Ibid.*, p. 17.

(5) *Ibid.*, p. 19.

(6) *Ibid.*, p. 24.

만, 한편 高利자가 商業을 沮止시킨다는 點은 是認하였다.⁽⁶⁾ Dudley North도 利子決定은 貸付者와 借入者간의 去來에 一任해 두는 것이 最善의 狀態라고 보았다. Petty와 달리 North는 貨幣(money)보다 스톡의 增加와 利子下落을 關聯시켰다. 스톡은 모든 種類의 商品을 包括하는것 같이 생각되는 바 스톡이 成長함에 따라 需要에 比해 貸付供給은 增加될 것이므로 長期的인 利子率下落은 經濟發展의 結果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⁷⁾

Locke는 富의 增大는 外國貿易의 均衡에 左右되는 것이지 利子下落에 依據하는 것은 아니며 法에 의해 利子を 下落시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國內에서의 富의 分配狀態를 變更시키게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自然利子率이 法定利子率보다 훨씬 높다면 法이 遵守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借入者와 貸付者의 去來에 全的으로 放置해두어도 좋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當時 法定利子率이었던 年6%를 支持했다. Josiah Child처럼 그는 漸增하는 居間들(middlemen)의 手中에 貨幣가 集中되는 것을 憂慮하였으며, 金融人들을 規制하는 方法으로서 法定利子率의 設定을 是認하였다. 法定利子率은 損害의 評價指針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恒常 自然利子率(natural rate)에 의해 決定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⁸⁾ 그에 의하면 利子は 貸付貨幣를 使用함으로써 派生된 利得을 分割한 것이다. 따라서 倫理的 觀點에서 보아도 利子は 妥當性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英國에서의 利子下落이 商品需要의 一般的 增加에 比해 貨幣量이 相對的으로 더욱 增加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商業利潤과 貸付價格은 減少될 것이라 생각하였다.⁽⁹⁾ 여기서 「貨幣」란 “商工業에 投資된 資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이러한 意味에서 「貨幣」 增加는 市場의 商品供給을 增大시킬 것이다. 需要가 그에 比例하여 增大되지 않는다면 物價(아마 利潤)는 下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따라 그는 和蘭에서 利子率이 比較的 낮은 것은 貸付供給面에 있어 貨幣가 增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17世紀의 代表的 見解를 비교적 적절히 나타내어 주는 것이며 利子變動이 商業利潤의 變動에 緣由한다는 見解와 相互補完하게 되는 것이다.⁽¹⁰⁾ 그리고 17世紀末에 이르러서는 一般的으로 富裕한 諸國의 利子下落은 經濟發展에 따르는 自然的인 結果라고 생각되었다.

利子率의 長期的인 下落傾向은 18世紀에도 계속 나타났던 바 1750年의 自然利子率은 1

(7) *Ibid.*, p. 25.

(8) *Ibid.*, p. 26.

(9) Locke는 한편 17世紀初에는 交易의 繁盛이 高利子の 原因이 되었으며 누구나 貨幣를 收益性이 있는 商業에 使用하려고 애썼던 것이라고 主張했다.

(10) G. S. L. Tucker, *op. cit.*, p. 28.

世紀半前に 비해 半밖에 되지 않았다.⁽¹¹⁾ 英國의 法定利率의 계속적 下落도 이와 같은 自然率의 下落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진다.

III. 利率과 利潤率

Joseph Massie 는 그 前世紀동안 英國에서 負債의 增加와 利率의 下落이 同時的으로 이루어졌다는 事實을 注目하고 17世紀中葉以來 小麥의 平均價格이 長期的인 下落을 보여 주었다는 事實과 結付시켜 交易利潤의 增減이 利率變動에 影響을 끼치게 됨을 重視하였다. 그런데 Locke 의 理論에 의하면 小麥의 平均價格이 下落됨은 交易에 비해 貨幣量이 減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自然利率은 上昇되었어야 하겠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Locke 의 原則은 誤謬”임이 立證된다고 하였다.⁽¹²⁾

이와 같이 Massie 는 Locke 를 批判하였지만 그의 利率理論은 Locke 의 影響을 얼마간 받았던 것 같다. 利率附貸借은 富의 不均等한 分配과 交易에서 貨幣를 使用함으로써 利潤을 獲得할 수 있는 機會가 存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¹³⁾ Locke 처럼 Massie 는 대체로 借入者와 貸付者간에 利潤의 分配를 合議하게 된다고 보았으므로 英國의 自然利率이 長期的으로 下落된 것은 交易利潤이 下落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말한 「利潤」 또는 「交易利潤」이란 總利潤量이라기보다 平均 또는 一般利潤率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商人은 一定量의 貨幣投資에서 獲得되는 利潤額과 貸付利率을 比較하든가 아니면 收益率(또는 利潤率)을 利率과 比較해 볼 것이다. 또한 Massie 의 論議는 一般的으로 交易利潤이란 交易量에 더한 交易者數의 比率에 依存한다고 假定하였으므로 前世紀동안 英國의 商人들의 數가 크게 增大하였기 때문에 그들 相互間의 競爭으로 인해 利潤은 漸次 下落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利潤은 交易量의 縮小로 인해서도 下落될 것인 바 外國商人이 國際貿易에 더 많이 參與하게 되고 他國들이 自體의 製造業을 發展시켜 自足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現象이 招來될 것이다.⁽¹⁴⁾

利率의 歷史的 下落에 대한 論議는 David Hume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세가지 假定에 依據하였다. 첫째는 社會階層에 따라 消費習性이 相異한 바 地主들은 消費와 借金의 性向이 높은 反面 商人들은 貯蓄과 貸付의 傾向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富가

(11) *Ibid.*, p. 32.

(12) Massie는 自然利率이 恒常 法定利率보다 1% 낮았다고 보았다.

(13) G. S. L. Tucker, *op. cit.*, pp. 38—39.

(14) *Ibid.*, p. 40.

大規模의 資本家들에게 集中됨에 따라 貸付의 能力과 意思가 더욱 助長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假定에서 封建制度의 沒落, 商工業의 成長 및 富裕한 商人階級の 重要性이 相對的으로 增大되고 供給과 需要의 均衡은 漸次 더욱 낮은 利子率의 方向으로 變化시키게끔 作用되었다는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그는 “商業이 擴大되어 大量的의 스톡크를 使用하는 경우⁽¹⁶⁾ 商人들간의 競爭이 惹起되어 交易利潤은 下落되고 交易自體를 增加시킨다”고 假定하였다. 貨幣所有者는 그 自身이 利潤을 追求하여 交易과 產業에 貨幣를 使用하든가 아니면 利子附로 他人에게 貸與해준다. 그러한 決定은 利潤率과 利子率의 關係가 變動함에 따라 影響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에 依據하여 Hume은 스톡크가 成長함에 따라 貸付供給이 增加됨으로써 利子率은 下落되고 많은 商人들로 하여금 계속 交易活動에 머물러 있게 한다고 보았다. 한편 交易에 使用되는 스톡크가 增大함에 따라 競爭은 強化되므로 利潤은 下落되고 貸付者는 낮은 利子도 容納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低利子和 低利潤간의 因果關係는 問題視되지 않으며 兩者는 다같이 廣範한 商業에 緣由하여 相互作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은 論議는 經濟發展의 一般의 또는 正常的인 過程과 關聯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Spain의 경우는 例外的이며 偶然的인 現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 他國에 比해 經濟發展에 있어 先進된 國家가 아니었음에도 그곳에서 利子が 下落되었던 것은 西印度諸島의 征服後(比較的 少數人의 財産으로 보았던) 大量的의 貨幣가 流入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貨幣는 土地의 購入이나 貸付에 投資되었기 때문에 一時的인 利子下落을 招來했다. 貨幣所有者들이 不節制하게 財産을 蕩盡한다면 利子が 다시 平常의 水準으로 復歸되었겠지만 西印度諸島는 계속 새로운 富를 供給해주었다.

英國 佛蘭西 및 其他 歐洲諸國에 있어서는 長期的인 利子下落이 貨幣供給의 增大와 相互關聯性을 가지긴 했지만 새로운 貨幣는 正常的인 交易過程에서 漸次的으로 獲得된 것이었고 利子の 下落과 直接的인 關聯性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Hume은 새로운 貨幣가 間接的으로 利子率에 影響을 미친다는 事實은 是認하였다. 低利子は 商工業의 成長結果이기도 하며 商工業은 貨幣供給의 增加에 의해 助長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貨幣로 인해 窮極的으로는 勞動과 商品의 價格이 上昇되겠지만 이는 時間間隔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므로 새로운 貨幣를 獲得함으로써 商人과 製造業者들의 勞動과 商品에

(15) *Ibid.*, p. 43.

(16) Hume은 스톡크란 用語를 明白히 定義하지는 않았지만 “스톡크는 勞動과 商品을 支配한다.”고 하였다.

대한 支配力은 增大되고 이에 따라 生産과 交易은 同時에 促進되고 생각되었다.⁽¹⁷⁾

한편 Turgot는 資本 또는 “動産”(movable rich)의 蓄積과 貸付者가 借入者에게 提供하는 貸付金의 增加와의 關聯性을 重視하였다.⁽¹⁸⁾ 그는 利潤下落后 貸付利率의 下落結果로 看做했던 것인데 이는 利率이 下落됨으로써 收益性이 더 낮은 部門에까지 投資가 擴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Turgot는 먼저 貸付利率에 影響을 미치는 原因에서 시작하여 그에 相應하는 利潤變動의 必然性을 推論하였다. 資本所有者는 資本을 土地購入에 投資하거나 그 自身이 農工 또는 商業에 使用하거나 아니면 他人에게 利率附近로 貸付해 주기도 하는 것인데 競爭으로 인해 이러한 選擇의인 諸投資類型의 純利得은 均等하게 되는 傾向을 갖게 된다. Turgot는 貸付利率을 金融資本家の 보다 큰 損失危險을 報償해 주는데 必要한 比率만큼 地代를 超過하는 것이며, 利潤率은 企業家の 努力能力 및 危險을 報償하고 資本의 消耗에 代置할 基金에 該當되는 만큼 利率을 超過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收益은 항상 같이 變動할 것이라고 보았다.⁽¹⁹⁾

그는 歐羅巴의 利率이 歷史적으로 下落된 것은 資本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富의 獲得과 立身을 위한 사람들의 努力에 緣由되는 것인 바 可用土地가 모두 專用되었기 때문에 資本의 所有者로서 貯蓄과 投資計劃에 專念함으로써만 그러한 目的이 達成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⁰⁾ 따라서 利率水準은 貸付possible한 資金이 豐富한가 또는 稀少한가의 與否를 測定해 주는 것이었고 各 產業分野에서 投資가 어느程度로 推進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고 보았다. Turgot의 이러한 見解는 17世紀의 英國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以上 Massie, Hume 및 Turgot의 見解들을 比較해 보면 Massie는 貸付에 대한 需要價格面을 주로 重要視하였고 Turgot는 주로 供給의 側面에서 論議하였으며 David Hume은 Massie에 比해서는 貸付의 供給面에 더 注目했다는 點에서 Massie와 Turgot의 中間에 位置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Massie는 利潤下落后 利率下落后의 原因으로 생각하였고 Hume은 兩者를 모두 商工業의 成長結果로서 서로 影響을 끼친다고 생각했음에 比해

(17) G. S. L. Tucker, *op. cit.*, p. 45.

(18) *Ibid.*, p. 46.

(19) 17世紀의 英國學者들은 商人의 收益이 貸付利率을 上廻해야한다고 생각했다. 法定利率下落后 地價를 上昇시킬 것이라는 論議는, 利率의 下落后에 따라 貨幣는 土地購入에 轉用될 것이어서 收益率이 다시 利率과 比等하게 될 때까지 地價를 上昇시키게 된다는 見解에 依據한 것이었다.

(20) G. S. L. Tucker, *op. cit.*, p. 47.

Turgot 는 前述한 바와 같이 貸付利率의 下落으로 因해 利潤이 下落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A. Smith 는 可用商品量이 同一한 경우 貨幣供給이 增加함에 따라 一般物價水準이 上昇하게 되지만 利潤率이나 貸付利率은 아무런 影響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物價上昇은 一定量의 貨幣購買力을 減少시키겠지만 同時에 그에 대한 利率의 購買力도 減少되므로 結果的으로는 貸借關係에 있어 아무런 變化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利率의 漸次的 下落은 財産의 安全性이 더 커지고 産業誘因에 따라 株式가 더욱 急速히 蓄積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貸付供給의 增大는 他條件 不變의 경우 利率을 下落시키는 傾向이 있지만 貸付需要도 같은 比率로 增大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는 國富論에서 需要面에 새로운 要因을 導入하여 資本의 成長으로 因해 貸付供給이 增大되는 것과 같이 製造業者나 商人들이 支拂하려는 貸付價格도 下落하게 된다는 點을 示唆하였다. 여기서 그는 Massie, Hume, Francis Hutcheson⁽²¹⁾ 및 Cantillon⁽²²⁾ 처럼 一般利潤率의 變動效果에 言及하고 “資本이 增大함에 따라 그 利潤은 必然적으로 減少한다”고 보고 그로 因해 生産者가 資本使用을 위해 提供하는 價格도 下落한다고 생각하였다. 貸付는 대체로 “浪費적이고 怠慢한” 者들에게보다 “儉素하고 勤勉한” 者들에게 提供되는 것이고 이러한 事實은 一般的으로 需要面に 큰 影響을 미치므로 利率은 漸次 下落된다는 것이다.⁽²³⁾ 그에 의하면 資本은 貯蓄에 의해서만 增大될 수 있는 것이며 經濟發展過程에서 自然的 增加의 傾向을 띠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도 利率을 利潤의 一部라고 생각하였으며 貸付를 받은 企業家로부터 派生된 間接的인 收入으로 보았다. 地主나 勞働者들이 消費의 目的으로 借金하는 경우 利率은 地代나 賃金에서도 支拂되어 지는 것이겠지만 그와 같은 非生産的인 貸付에 對해서는 別로 注目하지 않았다.

IV. 經濟發展과 利潤率

1.

A. Smith 는 國富論중에서 英國의 富가 蓄積됨에 따라 利潤은 長期的으로 下落되었음을 論議하였다. 여기서 “스톡크의 利潤”(profits of stock)이란 資本에 對한 「利潤率」을 意味

(21) *Ibid.*, p. 37.

(22) *Ibid.*.

(23)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Edited by Edwin Cannan [1904], vol. I pp. 392-3.

하는 것이었고 利潤의 絶對額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利潤의 絶對額은 항상 增大한다고 보았다. (24)

그는 스톡스가 증가되어 交易量이 많아지고 競争이 酷해짐에 따라 두 가지 側面에서 利潤率이 減少하게 된다고 보았다. 各生産者는 더욱 低廉하게 商品을 販賣하게 되며 他面으로는 賃金を 上昇시키게 된다. 商品에 대한 需要나 可用去來量 (amount of business available)은 生産增大와는 別途로 決定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平均利潤率은 새로운 領土의 獲得이나 交易擴大에 의해 上昇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現象은 一時的인 것이고 利潤의 下落傾向은 繼續된다는 것이다. Smith의 利潤理論은 두가지 面에서 事實의 뒷받침을 받았다. 첫째는 發展의인 國家들에 있어 貸付利率은 恒常 下落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는 貸付利率이 交易에 있어 投資의 收益性에 依存하는 것이며 利率의 變動은 經濟發展이 利潤率에 미치는 效果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는 一定 時期에 相異한 諸國의 利率을 比較해 보면 그것은 國富의 水準과 逆比例의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利潤率의 差異로 因해 比較的의 더욱 富裕한 和蘭의 資本은 相當量이 英國으로 輸出되고 英國資本의 一部는 그보다 貧困한 佛蘭西 등지에 投資되어 보다 높은 利潤을 追求하였다. (25)

『國富論』에서는 經濟發展이 利潤率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問題가 貸付利率의 問題에 附屬되는 것이 아니었고 利潤은 그 自體만으로서도 政治經濟學의 한 中心問題가 되었다. (26)

『國富論』에는 調和가 아닌 經濟的 利害의 相衡問題도 論議되었다. 經濟가 發展함에 따라 賃金の 上昇과 地主의 實質的 富가 增大하는 傾向이 있지만 利潤率은 下落한다고 보았다. 이런 見地에서 資本所有者의 利害가 勞動者나 地主 등의 社會의 一般利害와 結付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雇傭主들의 私的 利益을 投資의 可能利潤率과 結付시켰고 그들의 實質所得의 絶對額과 結付시키지 않았다. (27) 後者は 經濟發展過程에서 繼續 增大될 법도 한 것이다. 資本所有者들은 資本蓄積과 競争度의 增大에 따른 利潤率下落에 대해 市場의 擴大과 競争의 制限을 企圖하는바 前者의 경우는 公共利益에 符合되는 수도 있지만 後者は 恒常 그에 背馳된다는 것이다.

利潤率下落은 國富가 增大했음을 나타내는 것에 不遇한 것이며 和蘭과 같은 成熟된 經

(24) *Wealth of Nations*, Vol. I. p. 337, p. 317; vol. II p. 112.

(25) *Ibid.*, I. pp. 90—94.

(26) G. S. L. Tucker, *op. cit.*, p. 63.

(27) *Ibid.*, p. 65.

濟에서는 利率이 매우 낮기때문에 大資本家階級은 有閑層의 扶養이 可能하겠지만 大部分의 資本家들은 企業家로서 交易 및 産業에 積極 參與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⁸⁾ Smith는 이러한 狀態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한편 19世紀初의 많은 英國經濟學者들은 利潤率이 下落됨에 따라 貯蓄誘因을 減少시켜 經濟의 成長過程을 制約시키게 됨을 憂慮했다. 社會는 窮極的으로 그 以上の 資本蓄積이 이루어지지 않는 定常狀態에 到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Smith는 이러한 現象은 法과 制度의 缺陷에 起因하는지는 모르나 利潤下落에 起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²⁹⁾ 실상 그는 高利潤이 資本蓄積에 有害한 것이라고 主張했으며 利潤이 下落한 後에도 스톡은 계속 또는 前보다 더욱 빨리 增大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利潤이란 概念에 대해서는 相異한 諸見解가 있었지만⁽³⁰⁾ 經濟發展이 利潤率에 미치는 效果에 關한 論議에 있어 이 問題는 一義的인 重要性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利潤」은 本質的으로 資本所有에 緣由하는 所得이라는 性格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概念規定이 어떠한 經濟發展에 따라 同一한 影響을 받게 된다고 假定되었던 것이다.

이 時期의 一般的 傾向은 利潤을 國民所得에서 勞賃과 地代를 支拂한 總餘分이라고 보는 것이었다. A. Smith와 그 後의 Ricardo, Malthus, Robert Torrens, James Mill, J. S. Mill 등도 同一한 方法을 取했다. Smith는 이러한 뜻에서 利潤이란 資本所有 그 自體에 起因하는 所得뿐 아니라 危險에 대한 保險과 “스톡使用的 困難”(trouble of employing the stock)에 대한 報償도 包含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820年代에는 이러한 “管理賃金”(wages of superintendence)은 利潤에서 除外되는 것이라고 定義되기도 했다.⁽³¹⁾ 그러나 어떤 경우는 利潤率이란 一年間 獲得된 利潤額의 資本額에 대한 比率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資本의 「古典的」 概念은 그 構成商品의 機能에 主로 依據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機能은 두가지 主要한 뜻으로 理解된 것 같다. 첫째는 技術的인 뜻으로서 生産手段으로 充用되는 諸商品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는 分配上의 뜻으로서 그 所有者에게 特定한 所得 即 利潤이나 利率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資本의 定義에서 或者는 前者를 重視하고 或者는 後者를 重要視하였지만 實際로는 두 見解가 不可分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前者의

(28) *Wealth of Nations*, I. p. 98.

(29) *Ibid.*, pp. 96—97 中國의 停滯狀態의 原因에 對한 論議參照.

(30) G. S. L. Tucker, *op. cit.*, pp. 77—79.

(31) *Ibid.*, p. 77.

경우 資本은 勞動에 의해 生産된 商品으로 생각되었고 將來의 生産을 위한 現存手段으로 留保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資本과 土地의 區別이 더욱 뚜렷해졌다.⁽³²⁾ 그리고 後者の 경우 資本은 Malthus가 規定한 것과 같이 “한나라의 스톡 중 富의 生産과 分配에서 利潤을 目的으로 保有되거나 使用되는 部分”이라고 생각되었다.⁽³³⁾ 이와 같이 資本의 概念을 特定 種類의 所得을 獲得하는 手段으로 생각하는 것은 資本을 生産手段의 하나로 보는 技術的 定義와 完全히 符合되는 것이다. 「資本」의 이와 같은 두가지 뜻이 結付됨으로써 두 觀點을 다 內包한 定義가 提示되기도 하였던 바 예컨대 G. P. Scrope는 資本을 “그것[資本]의 生産物을 販賣함으로써 利潤을 獲得할 目的으로……生産에 使用되거나 使用하기 위해 留保된 動產스톡(movable stock)部分”이라고 하였다.⁽³⁴⁾

그런데 資本을 하나의 生産要素로 보는 技術的 見解는 原始的인 經濟에서 先進經濟에 이르기까지의 어떠한 類型의 經濟에도 適用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利潤의 概念을 19世紀初의 諸學者들 처럼 資本家라는 別個의 集團에게 歸屬되는 所得으로 看做하는 한 資本은 그러한 利潤의 源泉으로서 英國이나 和蘭과 같은 「資本主義」經濟에 局限되는 것이 될 것이다.

2.

A. Smith가 資本蓄積이 利潤下落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두가지 側面에 緣由되는 것인 바 그 中 資本蓄積이 賃金에 미치는 效果를 통해 利潤率에 影響을 미친다고 主張한 것은 그 後 Ricardo가 “利潤은 事實上 賃金의 高低에 依해서만 左右되는 것이다”라고 한 見解를 豫示한 것 같기도 하다.⁽³⁵⁾ 그러나 Smith는 Ricardo의 경우처럼 勞動者의 生存費用이 上昇하는 問題를 論議한 것은 아니며 經濟成長過程에 있어 勞動需要의 增大에 起因하는 實質賃金의 累進的 增加效果를 論議한 것으로 보아진다. Ricardo는 資本이 더욱 急速하게 蓄積됨에 따라 實質賃金이 더 한층 上昇되는 傾向이 있음을 是認하긴 했지만 資本의 成長率에 따라 勞動의 供給도 自動적으로 調節되어 賃金에 대한 勞動需要의 增大效果를 相殺한다고 假定하였다. 競爭으로 因해 勞動者의 實質賃금이 上昇되어 所要의 人口成長率을 誘發시키는 水準이 된다면 勞動은 資本과 같은 比率로

(32) *Ibid.*, pp. 82—82.

(33) *Ibid.*, p. 86.

(34) *Ibid.*,

(35) *Ibid.*, p. 91.

增加하여 他條件 不變時 그 以上 賃金이 上昇되거나 利潤이 下落되지는 않게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³⁶⁾ 그는 資本과 人口가 增大함에 따라 穀物의 生産費가 上昇됨으로써 賃金에 미치는 效果를 가장 重視하였다. 그는 “利潤은 賃金에 依存하며 賃金은 一般的 條件下에서 食料品 및 必需品의 價格에 依存하고 食料品과 必需品은 最終 耕作地의 肥沃度에 依存한다”고 보았다.⁽³⁷⁾ 資本이 蓄積됨에 對해 一時的이나 勞動이 不足하거나 永續의으로는 肥沃한 土地가 漸次 不足하게 되어 勞働者들의 消費를 위한 穀物生産費가 增大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利潤을 變動시키는 諸要因에 對한 Ricardo의 分析은 “利潤은 交換에 附隨되는 것이 아니라 勞動生産力에 起因한다”는 假定에 依據한 것이다. 特定 生産者의 利潤은 一時的으로는 需要의 狀態 따라서 消費者에 對한 價格에 의해 影響을 받을 수도 있지만 全般的으로 보면 利潤이란 一定期間 賃金과 資本의 補填에 必要한 量 以上으로 生産할 수 있는 勞動의 能力에 起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Robert Torrens에 依하면 「自明한」 것이었고 勞動價値說에 對應하는 것이다. 利潤에 대한 이러한 見解는 A. Smith의 影響에 緣由한 바가 컸다고 하겠다.

Ricardo의 理論에는 地代란 農業에 있어 限界 및 限界內 生産者들의 利潤을 均等化시킬 뿐이었다. 따라서 地代의 上昇은 利潤의 下落을 反影하는 것이어서 地代의 上昇과 利潤의 下落이란 農業에 있어 收穫遞減이란 原因에 起因하는 共同結果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利潤率變動에 관한 理論에서는 地代가 無視될 수도 있을 것이어서 限界投資에 起因하는 所得은 單只 利潤과 賃金으로만 區分될 수 있다고 보았다.⁽³⁸⁾ 이와 같이 利潤과 賃金이 (限界)生産物이나 所得의 比率로 說明되는 경우 前者는 後者와 逆比의 關係로 變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³⁹⁾ 兩者의 이러한 關係는 그다지 明白한 事實은 아니지만 Ricardo는 그 命題를 同 論議의 單純한 必然的 歸結로 看做하여 恒常 그럴 것이라고 假定하였다. (限界)所得의 比率로서 賃金이 上昇한다는 것은 賃金에 대한 利潤率의 下落과 같은 것임이 明白하지만 利潤率이란 利潤額을 投資된 資本額과 比較함으로써 얻

(36) 蓄積이 利潤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Smith의 論議를 論評하는데서 Ricardo는 “Adam Smith가 여기서 賃金上昇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人口의 增加 以前에 增大된 賃金에 起因하는 一時的 上昇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Davi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in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ed. by Piero Sraffa (Cambridge, 1951-5), p. 289.

(37) G. S. L. Tucker, *op. cit.*, pp. 91-92.

(38) *Ibid.*, p. 95.

(39) *Ibid.*, p. 96.

어지는 것이며 後者는 勞動者에게 先拂된 賃金과 함께 材料 道具 및 施設을 包含하는 것이므로 利潤率이란 賃金の 比率에만 左右되는 것이 아니라 固定(또는 더 嚴密하게 말한다면 非賃金)資本의 量에 依存하는 것이다. 따라서 Robert Torrens의 主張처럼 만약 技術이 向上되어 固定(또는 非賃金)資本의 一部分이 不必要하게 된다면 비록 賃金에 대한 利潤의 比率이 不變하다 하더라도 利潤率은 上昇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技術知識의 改善이나 아무런 資本-貯蓄革新이 없는 經濟를 前提로 한다면 이와 같은 Ricardo의 結論은 妥當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利潤率의 變化가 前述한 바와 같이 (限界)投資에 緣由하는 所得이나 生産物에 對한 勞動賃金の 比率과 關聯된다고 한다면 이 比率은 첫째 勞動賃金으로 支拂되는 商品量(所謂 商品賃金 commodity-wage)에 依存하며,⁽⁴⁰⁾ 둘째 一定量의 勞動을 使用하여 限界로(at the margin) 生産되는 商品量에 依存할 것이다. 만약 勞動需要가 供給에 比해 增大하여 勞動者의 交渉上의 地位가 向上된다면 商品賃金은 上昇될 것이고, 한편 資本과 人口가 成長함에 따라 肥沃度가 덜한 土地에까지 耕作을 擴張하거나 收穫遞減의 條件下에서 耕作을 더욱 集約적으로 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一定 勞動量에 의한 (限界)生産量은 減少될 것이다. 「實物」(real)關係에서 생각할 때 이러한 要因中 어느 것이든 賃金の 比率을 增大시켜 利潤率을 下落시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交換經濟에서는 物的 量보다 價値를 考慮해야 하므로 限界投資의 生産物中의 一部分으로서 賃금이 增大하는 경우 그것은 生産高의 貨幣價値에 比해 貨幣賃金額이 增大하는 形態가 될 것이다.

Ricardo는 穀物價格이 上昇되면 貨幣勞賃을 上昇시켜 製造業者는 그 前과 같은 產出高를 올리지 못할 것이므로 다른 商品의 價格도 一般的으로 上昇시키게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物價의 上昇이 製造業에 대해서 賃金の 增大를 全部 補償해줄 만큼 充分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그 利潤率은 下落될 것이라고 보았다.⁽⁴¹⁾ 이러한 생각은 生産이 減少되면 商品需要도 供給과 비슷한 比率로 減少할 것이라는 見解에 依據한 것이었다.

貨幣賃金の 水準이 一般的으로 上昇한다면 이로 因한 損失을 價格引上의 形態로 移轉시킬 수 있는 固定貨幣所得層이 存在하지 않는 한 利潤은 下落할 것이다. Ricardo는 A. Smith처럼 國民所得은 地代 賃金 및 利潤만으로 區分된다고 假定하고 雇傭主들이 그 損失을 共同體內의 다른 部門에 移轉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또한 設使

(40) *Ibid.*, p. 98.

(41) *Ibid.*, p. 99.

그가 公共貸金業者들과 같은 固定貨幣所得層을 考慮했다하더라도 資本家들이 商品價格을 賃金の 上昇에 對應하여 上昇시킴으로써 自己들의 損失負擔을 다른 사람들에게 移轉시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價値論에 의하면 한 商品의 價値나 그 商品으로 交換하려는 다른 商品의 量은 그것의 生産에 所要된 勞動의 相對的 量에 依存하는 것이며 그들 勞動에 대한 多少間의 報酬에 依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⁴²⁾ 價値關係를 考慮하는 경우 物理的 生産力(physical productivity)의 漸減効果와 貨幣賃金の 增大 효과를 생각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인데 Ricardo의 價値理論에서 보면 穀物價格이 增大됨에 따라 一定의 產出高增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量의 勞動이 必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Ricardo가 勞動價格이 上昇될 경우 모든 商品의 價格도 이와 均等하게 上昇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貨幣를 하나의 商品으로 看做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⁴³⁾ 만약 金の 生産이나 獲得에 所要되는 實質費用이 下落된다면 勞動價格을 包含하는 모든 物價는 그에 比例해서 上昇할 것이기 때문에 貨幣賃金の 上昇은 간혹 모든 商品(價値基準으로 使用되는 商品인 金 外의)의 價格上昇과 結付될지도 모른다. Ricardo도 이러한 경우에는 利潤率에 別다른 影響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⁴⁴⁾ 賃金の 上昇이 貨幣價値의 低落에 起因하는 것이 아니고 勞動者의 交渉上의 地位나 穀物價格의 上昇에 緣由하는 것이라면 그 結果 一般物價의 上昇보다 利潤의 下落이 招來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金鑛에 從事하는 者들 外의) 모든 生産者들이 貨幣賃金の 上昇에 比例하여 自己네의 財貨價格을 上昇시킬 수 있다고 하면 金生産의 相對的 收益性이 減少될 것이므로 金の 새로운 供給은 더 높은 (豫想)物價水準에 對處하기 위해 더 많은 量이 所要되는 때에 減少되어 버리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金の 供給源이 外國이라고 보더라도 金の 供給은 國內物價의 上昇에 따라 비교적 低廉한 外國財貨를 輸入하게끔 刺戟이 加해짐으로써 減少될 것이다.⁽⁴⁵⁾ 以上の 어느 경우에나 볼 수 있는 矛盾은 賃金の 上昇이 物價에 대해서보다 利潤에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假定함으로써만 解消될 수 있었다.

Ricardo는 또한 賃金の 上昇으로 先拂金總額에 比해 賃金支拂이 갖는 重要性의 相異와 投資期間의 相異에 따라 商品들의 相對價格이 再調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再調

(42) Ricardo, *Principles*, p. 11, p. 26.

(43) Tucker, *op. cit.*, p. 102.

(44) *Principles*, pp. 48, 63—4.

(45) *Ibid.*, pp. 104—5.

整에 따라 各産業의 利潤率은 더욱 낮은 水準에서 均等하게 될 것이지만 貨幣도 다른 財貨와 같이 商品으로 看做되므로 모든 商品의 價値가 相互間에 同時的으로 上昇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Samuel Bailey 는 資本의 蓄積에 따라 勞動價値가 上昇되더라도 諸商品의 價値를 增大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⁴⁶⁾

Ricardo 의 價値理論에서 본다면 同一量의 勞動은 物理的 生産力이 어떻게 變化하더라도 同一한 價値를 生産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더 肥沃한 土地에까지 耕作을 擴大하거나 既存 農地를 더한층 集約的으로 耕作하는 경우 一定量의 新規 雇傭勞動이 生産하는 產出高의 增大는 漸減된다 하더라도 穀價가 上昇됨으로써 그 價値額은 變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穀物價格은 農民으로 하여금 限界物의 生産力의 減少를 補償함에 必要할만큼 上昇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實質勞動生産費가 그와 같이 增大되지 않는 製造業에서와 같은 水準의 利潤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不可缺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一定量의 穀物을 包含하는 商品賃金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穀物價格이 上昇됨에 따라 모든 産業의 貨幣賃金은 上昇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一定價値의 產出高를 위한 賃金의 比率은 增大되어 利潤率은 下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利潤率下落의 原因에 對한 Ricardo 의 理論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와 關聯하여 經濟發展이 利潤率에 미치는 效果도 論議될 수 있다.

Ricardo 에 있어 經濟發展과 利潤率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論議로서 그 骨子를 이루고 있다. 卽 利潤은 貯蓄의 主要源泉이며 貯蓄은 投資와 一致되는 것이고 資本이 成長함에 따라 勞動에 대한 需要도 多少間 同一比率로 增大된다는 것이다. 利潤率의 下落은 資本成長을 鈍化시키게 될 것이다.

Richard Jones 는 歷史的으로 考察해볼 때 資本蓄積은 共同體의 모든 階級으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主張하면서도 當時 英國의 主要한 貯蓄源泉은 利潤이라는 點을 是認하였다. Ricardo 는 “資本은 利潤에서 貯蓄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資本家의 貯蓄目的은 生産의 目的을 위해 支出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貯蓄과 投資를 區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利潤理論을 英國에 適用함에 있어 새로운 資本의 供給은 投資收益性이 顯著하게 下落할 경우라야만 重要한 影響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資本蓄積이 停止될 程度의 最底點 以下로 下落되는 경우외에는 利潤率을 別로 重視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R. L. Meek 는 Ricardo 가 資本蓄積率을 (그에 對한 報酬로서 測定되는) 利潤率의 函

(46) Tucker, *op. cit.*, p. 103.

數라기보다 (資本家の貯蓄能力을 規定하는) 利潤額의 函數로 생각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Ricardo가 Malthus에게 보낸 書翰들을 보면 「利潤」(profits)이란 말을 「利潤率」(rate of profit)의 簡略한 表現으로 使用했음이 分명한 것 같다.⁽⁴⁷⁾

嚴格히 생각한다면 資本家の貯蓄能力은 그들의 所得額이나 利潤額에 依存하는 것이며 貯蓄誘因은 投資에 대한 豫想資本利益率에 影響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世紀初의 英國 經濟學者들은 이러한 區別에 別로 留意치 않고 資本成長은 利潤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빨라진다고만 主張했다. “높은 利潤은 資本蓄積에 有利하다.”고 본 Ricardo의 경우⁽⁴⁸⁾엔 이 두가지를 같이 念頭에 두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Malthus에 의하면 利潤率이 下落됨에 따라 「貯蓄能力과 意思」 또는 「蓄積能力 및 蓄積動機」는 弱화된다고 보아 지는 바⁽⁴⁹⁾ 能力과 動機에 對한 見解는 密接한 聯關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兩者는 다 같이 利潤率變化에서 影響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Ricardo는 資本이 蓄積됨에 따라 人口의 成長이 停滯되건 또는 資本과 같은 比率로 成長하건 間에 賃金이 上昇됨으로써 利潤率은 下落되는 傾向이 있다고 보았다.(人口增加의 比率이 資本과 같지 않은 경우 部分的으로는 勞動需要의 相對的 增加에 의해서, 그리고 部分的으로는 穀價의 騰貴에 의해서 賃金이 上昇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短期的인 觀點에서는 利潤이 一時的으로 勞動의 稀少에 의해 影響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長期的인 見地에서는 重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人口는 그 基金에 의해 스스로 調整되므로 資本의 增減에 따라 恒常 增減된다.”고 보았던 것이다.⁽⁵⁰⁾ 勿論 이러한 調整은 時間間隔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資本蓄積率의 短期的 變動에 따라 그에 相應하여 賃金도 變化될 수 있을 것이다.⁽⁵¹⁾

資本增加率이 一定하다면 商品賃金은 適正水準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人口(또는 勞動供給)는 資本과 같은 比率로 成長할 것이다. 長期的인 見地에서 보면 貨幣賃金은 食料品 및 其他 必需品의 價格과 正比例로 變化할 것인 바 그렇지 않다면 必要한 勞動供給은 困難해질 것이다. Ricardo는 “勞動의 自然價格”이 “人民의 慣習과 風俗”(habits and customs of the people)에 依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或者는 必需品價格의 上昇效果가 慣習上

(47) *Ibid.*, p. 109.

(48) *Principles*, p. 334.

(49) T. R. Malthu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Considered with a View to their Political Application*, London: J. Murry, 1820, pp. 296, 355, 373.

(50) Ricardo, *Principles*, p. 78, p. 292.

(51) *Ibid.*, p. 165.

의 標準이 下落됨으로써 相殺될지도 모른다고 보았거나 또는 勞動者들의 生活水準은 既히 最低限에까지 下落되어 있지 않다면 必需品의 價格이 上昇된다 하더라도 影響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主張하기도 했다.⁽⁵²⁾ Ricardo도 이러한 點을 是認하였지만 實質所得의 減少를 堪耐할 수 있는 勞動者들의 能力이나 用意은 必要不可缺한 人口를 扶養하는 동안에는 매우 制限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⁵³⁾

要컨대 社會發展過程에서 資本과 人口가 增加함에 따라 계속 보다 덜 肥沃하고 더욱 遠隔하게 位置한 土地에까지 耕作을 擴張하게 됨으로써 勞動者들의 生計에 主要한 品目인 穀物價格은 上昇하게 되고 이에 따라 貨幣賃金이 上昇되어 利潤率은 下落하는 傾向을 띠는 것이다.

人口가 不變하는 경우에도 資本이 增加되면 勞動需要가 增大되어 貨幣賃金은 上昇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勞動者의 狀態가 改善됨으로써 結婚 乃至 人口成長을 促進시키게 된다고 보아진다. 이런 見地에서 勞動者家族의 消費商品價格이 一定하다면 長期的으로 보아 勞動이 資本과 같은 比率로 增加하게 되는 어떤 貨幣賃金率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賃金水準에서는 他條件 不變時엔 資本이 一定比率로 增大하더라도 利潤率은 더 以上 下落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長期的인 觀點에서 본 利潤率의 下落原因은 生活必需品에 대한 需要가 增大함에 따라 그 價格이 上昇된다는 것에 緣由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勞動者가 同一量의 商品을 購入할 수 있게 되려면 貨幣賃金은 上昇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⁵⁴⁾ 人口成長은 食料品에 대한 需要를 그에 比例하여 增大시키게 된 것이므로 穀物價格은 그에 必要한 供給을 增大하도록 誘導하게끔 上昇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利潤은 自然的으로 下落하는 趨勢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社會富가 發展됨에 따라 必要한 食料品の 增加는 勞動을 더 많이 消耗함으로써만 獲得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⁵⁾ 이와 같은 賃金上昇 내지 利潤下落은 두가지 重要한 效果를 招來할 것인 바 첫째는 資本家들이 새로운 貯蓄중의 더 많은 部分을 肉體勞動(manual labour)에 代替하여 機械의 使用에 充當하게끔 促進할 것이고, 둘째는 그 社會의 資本增加를 위한 能力과 意

(52) Tucker, *op. cit.*, p. 115.

(53) Ricardo, *Principles*, p. 118.

(54) 勞動者들의 다른 消費商品價格이 그 生産에 所要되는 原料生産費의 上昇에 따라 上昇된다면 貨幣賃金은 더한층 上昇될 것이다.

(55) Ricardo, *Principles*, p. 120. Ricardo는 蓄積이 相當期間 進展된다면 利潤率뿐만 아니라 利潤總額도 減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思가 減少될 것이다. 資本家들은 이와 같은 貯蓄誘因의 減少에 따라 所得중 보다 작은 部分만 蓄積할 것이고 利潤率이 높아 되면 蓄積도 中斷되어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은 利潤率의 下落傾向을 어떤 方法으로든 沮止시키지 않는다면 窮極的으로는 經濟成長이 沮止된다고 할 수 있다. 資本增加率이 漸減되기만 한다면 人口成長率도 같은 傾向을 띠게 되겠지만 資本蓄積이 停止됨에 이르러서는 商品賃金은 「自然」水準으로 下落될 것이어서 勞動者의 停滯的 人口의 維持에만 充足될 것이다.⁽⁵⁶⁾

以上과 같은 Ricardo의 利潤理論에는 技術知識의 向上으로 因한 反作用의 效果가 考慮되지 못했다는 批判도 있겠지만 Ricardo의 理論은 「他條件 不變」의 假定위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려니와 實상 農業의 向上이 利潤에 미치는 效果는 그다지 綿密하게 追究되지 않았다.

3.

한편 Malthus 등은 不況으로 因해 모든 交易活動이 鈍化되어 市場이 不足되고 利潤이 下落되는 事實을 注目하였다. 過剩狀態가 一般的인 現象으로 看做되었고 資本과 勞動이 過剩한 變態(anomaly) 또는 矛盾된 狀態를 示顯하였으며 賃金과 利潤은 同時에 下落되었던 것이다. Malthus와 Sismondi 등은 美國의 경우를 注目하였던 바 그곳에는 肥沃한 土地가 無限히 存在한 것 같은데도 戰時的 英國이나 歐洲에서와 類似한 一般的 不況을 겪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들은 前述한 Ricardo의 理論과 相違된다고 보아졌고 따라서 그 理論은 不正確하거나 허술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다.⁽⁵⁷⁾

Malthus는 他條件이 不變하다면 利潤率의 下落되는 傾向은 農業의 收穫遞減에 緣由하는 것임을 是認하였지만 利潤은 實際 다른 諸影響도 받게 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는 概念上 利潤率의 「限界」(limitation)와 「規定」(regulation)을 區別하였는데 前者는 土地에 投下된 資本 및 勞動의 (限界)生産力 減少에 起因하는 利潤의 必然的 限界를 말하고 後者는 一定 時期에 있어 그러한 限界內에서 實際水準을 決定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區別에 의해 Malthus는 첫째 農業에서의 收穫遞減이 利潤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Ricardo의 分析을 首肯하긴 했지만 Ricardo와는 달리 그는 穀價가 下落되면 農民들의 利潤이 低下되어 勞動使用 地代支拂 및 製造品購入의 能力을 減少시킴으로써 需要를 大幅 縮小시키고 Ricardo의 경우와 같은 水準以下로 利潤을 下落시키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⁵⁸⁾

(56) Tucker, *op. cit.*, p. 119.

(57) *Ibid.*, p. 127.

(58) Malthus, *Principles* (1820), pp. 179—80, 444—6, 493—5.

둘째 이로서 利潤率의 史的 變動原因을 明瞭하게 追求하게 된 것인데 이는 政府證券의 利率變動으로부터 推理될 수 있었던 것이다. Malthus는 利潤의 變動이 Ricardo의 理論에서 보여준 假設的인 上限(upper limit)이하의 水準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 그는 “스토크의 利潤은 土地의 狀況이 許與해줄 限界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程度 더 낮게 될지 모른다”(59)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他面 그는 人口의 不均衡인 增加로 因한 賃金의 非正常的 下落에 따라 利潤이 非正常的으로 增大될지도 모르는 것이며(60) 새로운 海外市場이 開拓된다면 높은 商業利潤이 先導하여 農業을 포함하는 모든 部門의 利潤을 上昇시키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61)

結局 Malthus는 利潤의 變化問題는 競爭이나 需要供給의 原理에 따라 論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Ricardo는 어떤 制限下에서 商品의 交換價値가 그것의 生産에 必要한 勞動의 相對的 量과 結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 비해 Malthus는 價値를 交換에 있어 商品이 支配하는 勞動量과 結付시켰다. 이러한 見地에서 利潤은 生産物로서 交換하게 될 勞動의 量과 그 生産物의 生産에 所要된 勞動量과의 差異로서 測定될 것이지만(62) 交換에서 支配되는 勞動量은 產出高의 物理的 量에 의해서만 아니라 勞動價格과 함께 需要 供給에 依해 決定되는 價格에 의해서도 影響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Malthus는 利潤率이 勞動의 需給과 比較한 스톡의 需給에 主로 左右되는 것이고 生産의 難易與否에는 그다지 左右되지 않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63) 이러한 論議는 片面에서 利潤에 對한 蓄積의 影響을 暗示해 주었다. 첫째는 消費者의 需要에 비해 財貨의 供給이 增大됨으로써이며, 둘째는 勞動의 供給에 비해 그 需要가 增大되어 賃金率이 上昇됨으로써 인 것이다. Ricardo는 이 中 둘째 要因이 短期的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음을 是認하였던 것이다. Malthus는 한때는 生産의 變化가 消費者의 需要에 비해 利潤에 미치는 影響에만 注目한 것으로 보이나 그 後에는 “資本의 稀少 또는 過剩供給”이 消費者需要에 比한 資本 生産物에 대해서보다 主로 勞動供給과 關聯시켜 考察하였다.(64) 그는 勞動의 供給과 資本의 供給이 恒常 같은 步調로 進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關係에서 利潤率의 重

(59) *Ibid.*, p. 512, pp. 300-1.

(60) *Ibid.*, pp. 306-7.

(61) Tucker, *op. cit.*, p. 129.

(62) 利潤은 生産物과 交換되는 貨幣量과 그 生産物의 費用인 貨幣量과의 差異로 測定될 수도 있다. Malthus는 價値測定으로서 勞動을 貨幣에 代置시켰을 뿐이다.

(63) Tucker, *op. cit.*, pp. 131-2.

(64) *Ibid.*, p. 133.

變動을 論議하였다. 이러한 그의 見解는 資本蓄積이 必然的으로 商品의 需要를 供給과 같은 比率로 增大시키게 될 것이라는 命題, 즉 Say의 法則에 대한 批判이 된다.

Malthus가 利潤의 下落을 財貨供給의 增大에 따른 資本家들의 競爭에 의해 초래되는 商品價格의 下落에 緣由시킨 것은 다음과 같은 點에 依據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비록 새로운 貯蓄이 實際로 生産的 勞動者에게 移轉되어 消費에 充當된다 하더라도 그 結果로서의 需要 自體로서의 資本利潤率을 實現하기에 不充分한 것이라는 點이며, 둘째는 비록 該共同體가 그 生産物을 全部 消費할 수 있는 能力을 恒常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는 意思는 缺如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상 勞動者들은 그 生産商品의 一部分만 賃金으로 받기 때문에 商品全體를 購買할 수는 없는 것이고 利潤이란 生産에 所要된 勞動者報酬 以上の 生産剩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資本家は 假定上 매우 節約的이고……貯蓄하여……資本을 增加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隔差는 資本家自身들의 需要로서의 充足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新規 勞動者들의 生産物에 대한 現行價格에서의 購買者는 不足하게 될 것이고 그 生産物販賣를 위한 競爭은 生産費에 비해 價格을 下落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一般的인 商品過剩으로 인해 利潤은 “거의 零으로” 下落된다는 것이다.⁽⁶⁵⁾

Malthus는 한편 資本家들이 그들에게 있어 潜在的으로 可能視되는 더 큰 利潤額을 實現시키는데 必要한 程度로 自身들의 支出을 增大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는 點을 否認하지는 않았지만 資本家들이 그렇게 할 意思가 있을가에 대해서는 疑問視하였다. 그는 “어떠한 國家도 恒久的인 消費減少에 起因하는 資本蓄積에 의해 富裕하게 될 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⁶⁶⁾

Ricardo는 資本家들의 消費減少問題는 資本增加에 따른 利潤率의 決定과는 그 自體에 있어 별로 關係가 없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蓄積過程에서 資本家들의 消費는 不變狀態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所得의 增加는 계속 增加하는 生産的 勞動者들을 維持시키는데 充當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⁶⁷⁾ 그는 年間生産高와 그것을 生産하는데 參與한 勞動者들의 購買力과의 間隔은 資本家들의 消費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投資支出에 의해서도 메꾸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換言하면 한해의 可用商品을 生産하는 勞動者들은 그 產出高를 다 購入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의 消費가 資本家들의 一定量의 消費와

(65) Malthus, *Principles*, pp. 352-4.

(66) *Ibid.*, p. 370.

(67) Tacker, *op. cit.*, p. 143.

新規勞動者들의 消費(그들의 產出高는 그 이듬해까지는 利用이 되지 않을 것이다)에 의해 補完된다면 需要는 不足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Malthus는 Ricardo에 反해 “蓄積에의 熱望”(passion for accumulation)으로 인해 利潤率이 下落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實質賃金の 低下와 失業을 隨伴하게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는 “높은 利潤이란 비록 外見上으로는 供給과 需要가 同一하다 하더라도 恒常 供給에 비해 需要가 超過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主張하였고 消費者에 대한 物價(및 利潤)는 諸種의 商品을 所有하려는 消費者들의 欲求程度에 左右되는 것이며 그 強度는 그들의 欲求가 充足되는 程度에 反比例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⁶⁸⁾ 그는 한편으로는 “資本을 增加시키기 위해 收入에서 貯蓄하는 것은 富를 增進시킴에는 絶對적으로 必要한 것”임을 認定하였지만,⁽⁶⁹⁾ 다른 한편으로는 蓄積에 따라 消費者들의 數와 欲望에 비해 商品은 加一層 풍부해짐으로써 利潤率은 下落되고 將來의 貯蓄動機는 減少되는 傾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非生産的 消費를 抑制하여 이루어지는 急速한 蓄積은 따라서 결국에는 勞動者들을 困窮에 處하게 하며 穀物生産이 더욱 困難해짐에 따라 經濟成長이 窮極적으로 制約을 받게되는 것과는 別途로 早期에 利潤을 下落시키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Ricardo는 萬若 現存生産의 價値가 貨幣로 보아서나 支配勞動量으로 보아 資本의 增大보다 앞서 增大된다고 하면 蓄積으로 인한 所望스럽지 못한 結果를 避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利潤率上昇에 該當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利潤增大에 따라 同一한 根源에서 蓄積과 消費支出의 增大가 同時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가 商品供給과 消費者欲求사이의 關係에 대한 初期의 論議를 그 後에도 導入한 것은 이와 같은 利潤의 初期의 上昇原因을 究明하려는 데에 緣由하는 것이다.⁽⁷⁰⁾

한편 Ricardo는 穀物生産費가 增大되는 것과는 別途로 短期的으로는 投資率이 높아짐에 따라 利潤率이 下落될지도 모른다는 點을 是認했지만 資本所有者들의 利益이 減少하더라도 社會全體의 見地에서 보면 勞動者들의 相關의 利益에 의해 完全히 補償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萬若 勤勉의 生産性(productivity of industry)이 同一하다면 利潤下落이란 다만 生産物이 勞動者에게 더욱 有利하게 分配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althus는 이와 달리 만약 어느程度 以上으로 收入이 資本으로 轉換되면 生産物에

(68) *Ibid.*, pp. 147—8.

(69) Malthus, *Principles*, p. 419, pp. 8, 33—4, 351—2.

(70) Tucker, *op. cit.*, pp. 149—50.

대한 有效需要⁽⁷¹⁾를 減少시킴으로써 勞動者를 失業化시키기 때문에 지나친 節約의 習慣은 富와 人口의 顯著한 不況을 永續化시킬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⁷²⁾ 그는 또한 “勞動節約을 위한 諸發明을 資本蓄積과 마찬가지로 需要에 關聯될이 없이 供給을 促進시키는 傾向을 가지는” 諸要因으로 보았다.⁽⁷³⁾ 發明의 有用性은 諸商品에 대한 市場擴大에 依據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機械 등을 급작스럽게 導入하면 勞動失業이 招來될지도 모르지만 實際로는 機械의 導入이 漸進적이기때문에 그것이 勞動需要를 減少시키는 效果는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資本의 過剩蓄積은 그 自體가 利潤率下落과 마찬가지로 失業 및 勞動困窮의 原因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이에 는 첫째로 資本家들의 雇傭能力 및 意思는 現在 收益되고 있는 資本利潤에 依據한다고 假定되었고, 둘째로는 實際上 現存貨幣賃金率이 적어도 當分間은 勞動需要가 供給에 비해 減少되더라도 影響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主張되었다. 이러한 假定은 Ricardo 에 의해 拒否되었지만 失業의 原因에 대한 Malthus의 分析에 있어서는 本質적인 것이었다. 그는 失業을 “가장 苦痛스럽긴 하나 貨幣賃金の 下落에 대한 거의 不可避한 前段階(preliminary)”⁽⁷⁴⁾라고 보고 “...勞動의 貨幣價格은 多數의 勞動者가 얼마동안 失業狀態에 놓여 있기까지는 決코 下落되지 않는다”⁽⁷⁵⁾고 생각했다. 이러한 假定에 依據한다면 蓄積이 高度化되면 利潤率은 下落되고 人口成長에 따라 새로운 勞動供給은 失業을 惹起시키게 될 것이다. 雇傭主들은 資本을 새로이 蓄積할 能力과 意思를 缺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勞動需要의 增加率은 現在의 勞動力成長보다 下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最少限 被雇傭勞動者들의 絕對數는 減少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Malthus는 高度의 蓄積率이 資本家들의 立場에서 뿐 아니라 國家全體의 見地에서도 不當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든 事實을 考慮해 본다면 雇傭者들이 消費와 貯蓄의 均衡을 改善하여 먼저 不當한 勞動需要를 抑制하고 다음에는 그와 같은 需要를 급작스럽게 縮小시키지만 않는다면 더한층의 幸福이 그들에게 保障될 것이다.⁽⁷⁶⁾ 한편

(71) *Ibid.*, pp. 138—40.

(72) Malthus, *Principles*, p. 369.

(73) *Ibid.*, p. 413.

(74) *Ibid.*, p. 455.

(75) Tucker, *op. cit.*, p. 153. Ricardo는 이에 대해 “만약 賃金水準이 그전에 높아 있었다고 하면 多數의 勞動者들이 失業狀態에 이르기 전에 그것이 下落되지 않을 것이라는 理由는 알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報酬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賃金도 받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疑問觀되는 것이다.……”라고 答하였다.

Ricardo는 摩擦없이도 賃金は 調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假定했기 때문에 失業問題를 憂慮하지는 않았다. 蓄積이 처음에는 높은 率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鈍化되는 傾向을 보이게 된다하더라도 勞動者들은 아무런 害를 입지 않을 것이다. 賃금이 一時的으로 上昇했다가 下落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勞動用役に 대해 많은 需要가 존속했던 동안만이라도 勞動者들은 利得을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나 Malthus는 蓄積率이 過度히 높으면 人口가 增加됨에 따르는 새로운 勞動者들 뿐 아니라 이미 雇傭되어 있는 勞動者들의 絶對數도 一時的으로나마 減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當時 大개의 學者들은 利潤率이 下落되면 生産이 從前과 같은 速度로 成長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은 是認하였지만 그 絶對量이 減少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⁷⁸⁾

Malthus의 論議는 資本家들이나 非生産的 消費를 抑制하여 資本과 生産을 急速히 增加시키는 경우 商品價格이 大幅 下落하게 될 것이라는 見解에 依據한 것이었다. 萬若 一般物價水準이 物的 財貨供給의 增大보다 더 큰 比率로 下落되어 버린다면 生産의 總體的 貨幣價値는 下落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貨幣賃금이 同一하다면 商品의 數量은 더욱 많으나 그 價値는 작으므로 이의 所有者가 갖는 勞動支配力 내지 雇傭能力은 絶對적으로 減少하게 되고 富의 增進은 決定的으로 沮止될 것이다.⁽⁷⁹⁾ 이러한 경우에 貨幣賃金率의 下落에 의해서만 從前과 같은 數의 勞動者들이 雇傭될 수 있고 다시금 前進的인 運動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지만⁽⁸⁰⁾ 貨幣賃금이 下落할 때까지는 많은 勞動者들이 失業狀態에 놓여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以上 보아온 바와 같이 Malthus는 實際生産이 增大되면 總利潤은 오히려 減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生産과 雇傭은 低下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資本所有者는 減少된 利潤의 一部分이라도 蓄積하여 賃金支拂에 使用할 수 있는 資金을 追加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現象은 必然的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V. 政策上的의 諸問題

以上에서 考察해 본 諸理論은 當時의 經濟現實과 諸問題點 또는 政策上的의 見解와 關聯되는 것이었다. 이를 問題別로 간단히 살펴 보자.

(76) *Ibid.*, p. 154.

(77) *Ibid.*,

(78) *Ibid.*, p. 155.

(79) Malthus, *Principles*, p. 418.

(80) *Ibid.*, p. 455.

먼저 法定利率에 관한 論議를 살펴 보면 17世紀에 있어 一部 學者들은 國家가 高利貸禁止法(Usury Laws)에 의해 市場實效率을 規制할 수 있다고 믿고 法定利率을 加一層 引下시킴으로써 富의 成長을 促進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老 Thomas Culpeper가 利率의 性格에 대한 論議에서 利率은 富를 生産者로부터 懶怠한 高利貸業者에게 移轉시키는 것에 不過하다고 보고 經濟發展을 交易擴張 土地改良 및 地價增大란 觀點에서 볼때 高利貸는 이러한 目的達成에 有害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도 뒷받침되었다. 뿐만 아니라 當時 英國은 海外에서 漸次 더 심한 競爭을 겪게 되었는데 外國 특히 和蘭의 商人들은 英國에 비해 낮은 利率의 惠澤을 받음으로써 貿易에 있어 훨씬 有利한 立場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에 對抗하기 위해서는 英國에서도 法定利率을 引下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反面 이에 대한 反對論者들은 이와 같은 政策은 不作用을 惹起시킬 것인바 利率下落的 經濟發展을 助長하는 要因이라기보다 그 結果에 不過한 것 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利率가 갖는 倫理的 妥當性도 強調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經濟發展에 따라 利潤率이 下落하는 傾向을 가진다는 理論과 資本所有者의 利害가 勞働者 및 地主 등의 社會一般의 利害와 結付되어 있지 못하다는 A. Smith의 생각은 그의 經濟的 自由主義政策과 完全히 符合되는 것이었다. 그는 勞動分業과 資本蓄積을 人間の 基本的 性向이 갖는 自然的 產物로 생각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손」과 市場의 擴張에 의해 相異한 分野사이에서 投資를 위한 稀少資本을 理想的으로 配分하는 것은 自由競爭을 維持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Ricardo가 그의 『利潤論』(Essay on Profits)에서 意圖한 것은 1815년에 提案되었던 穀物條例의 不當性을 論證하려고 한 것이었다. 즉 海外로부터의 低廉한 穀物輸入을 制限함에 따라 漸次 國內의 보다 덜 肥沃한 土地까지 耕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利潤率은 低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點을 力說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Ricardo는 貨幣賃金이 產出高의 價値보다 더 큰 比率로 增大할 것이므로 利潤率은 下落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反面 Malthus는 利潤率은 資本產出高에 대한 需要에 비해 資本의 蓄積量이 어떠한가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라고 보고 穀物輸入을 制限함으로써만 利潤率이 上昇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穀物供給의 減少는 資本減少에 該當하는 것이기 때문에 Ricardo의 示唆처럼 비록 商品需要가 減少한다 하더라도 供給과 같은 比率로 下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런 경우 資本家들은 部分的으로는 實質賃金의 下落에 의해서, 部分的으로는 一般物價의 上昇에 의해서 困難을 補償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았다.⁽⁸¹⁾

한편 Malthus는 資本家들의 過剩貯蓄乃至 過剩投資와 過少消費에 起因하는 利潤下落을 防止하기 위해서 “거대한 生産力을 가진 國家는 一群의 非生産的 消費者를 가져야 한다.”고 主張하였다.⁽⁸²⁾ 그는 資本家들에게 課稅하여 非生産的 消費者들에게 收益을 移轉시켜 줌으로써 資本蓄積을 抑制하고 消費를 助長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로써 購買力을 增大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提案은 Ricardo 理論의 假定에서 離脫될 수 없는 弱點이 있었다. Malthus는 “強制的 紙幣發行”(forcible issues of paper)을 別로 信賴하지 않았으며 貨幣政策의 問題에 對해서는 Ricardo와 別로 差異가 없었기 때문에⁽⁸³⁾ 이와 같은 方法으로는 融資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非生産的 消費者들의 所得은 資本家の 自發的 支拂에 依하거나 公共借款의 方法을 통해 生産的 階級으로부터 移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點에 對해서 Ricardo는 非生産的 消費者가 利潤을 增大시킬 수 있다는 事實을 疑問視하였다. 課稅를 통해 아무런 積極的인 經濟的 機能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所得을 移轉해 줌으로써 (純)所得을 減少시키는 것 보다는 利潤이 低下되더라도 勞動者들에게 더욱 有利하게끔 生産物을 分配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Malthus는 또한 商品이 더욱 豊富해져서 消費者들의 欲求를 더욱 充足시켜 주면 需要의 強度(intensity of demand)를 弱화시키게 된다고 생각하고, 새롭고 더욱 所望되는 財貨를 導入함으로써 需要의 強度를 維持乃至 增大시키면 生産者들의 利潤을 增大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交易를 통해 國內生産物과 새로운 外國의 商品을 交換해들임으로써 國內의 消費欲望을 더욱 刺戟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商品들은 多樣性을 더욱 많게 하고 欲望에 더욱 適合한 것이기 때문에 國民들은 더욱 높은 價値를 賦與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國民所得의 價値는 더욱 增大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Malthus의 主張은 그가 穀物輸入을 反對한 것과 對照가 된다고 보겠다. Ricardo는 Malthus의 이와 같은 見解를 反對하고 國際貿易은 더욱 低廉한 穀物과 必需品을 導入함으로써 貨幣價金を 下落시켜 間接的으로 利潤率을 上昇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Ricardo가 內外交易의 擴張을 所望스럽게 생각한 것은 事實이며 이러한 目的은 當時 대부분의 英國經濟學者의 생각과 같은 一般的 自由貿易政策으로써만 促進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Malthus는 穀物의 自由貿易으로 因한 利得은 外國貿易에 直接 從事한 少數의 資本家들에게만 局限되는 것이고 國內市場을 위한 生産者들은 地主와 農民들의 購買力이

(81) Tucker, *op. cit.*, p. 147.

(82) Malthus, *Principles*, p. 463.

(83) *Ibid.*, pp. 514--15. Tucker, *op. cit.*, p. 145.

減少됨에 따라 損失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⁸⁴⁾ 그는 地代와 農業利潤이 英國의 製造業에 對해 海外市場보다 더욱 確實性있는 需要源泉을 이루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 Ricardo는 穀物 乃至 勞動價格의 下落은 다른 商品價格에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地代는 實상 生産者로부터의 地主에 대한 移轉支拂에 不適當한 것이므로 地代가 下落되더라도 總需要는 減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1815年의 穀物條例에 對한 議會의 反對者들은 穀物價格이 높으면 貨幣賃金이 上昇되기 때문에 英國의 輸出品價格이 上昇하게 된다는 見解에 主로 依據했다. 이에 따라 海外市場에서의 競爭力이 減少될 것이라는 것이다.⁽⁸⁵⁾ Ricardo는 이러한 見解를 拒否하고 賃金이 높으면 利潤이 下落되는 것이지 價格이 上昇하거나 交易이 減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⁸⁶⁾ 當時의 政治的 論爭에서는 輸出價格의 上昇으로 因한 損失의 문제가 利潤率이 下落됨에 따른 國家的 損失보다 더한층 緊迫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이므로 Ricardo의 論據가 갖는 有効性이 덜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穀物條例가 物價에 對해서보다 利潤에 미치는 効果에 關한 論議는 商人과 製造業者들의 利益을 擁護하기 위해 圖謀된 것이라고 解釋될 수도 있었다.

한편 Malthus 등에 의한 「過少消費」理論은 課稅와 公債의 方法을 통한 公共支出의 증대를 擁護하는데 援用되었다. 그 中에도 John Lalor는 J. S. Mill의 貨幣理論에 依據하여 貯蓄과 投資를 區別하고⁽⁸⁷⁾ 貨幣貯蓄은 收益性있는 投資機會보다 더 큰 比率로 成長하는 傾向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蓄積된 遊休殘高는 週期的인 投機熱에 依해 消盡되고 그에 따라 不可避한 恐慌이 隨伴되며 그 후에는 새로운 貨幣貯蓄의 deflation的인 壓力이 擡頭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새로운 金の 發見으로 因해 投資하려는 貨幣資本의 스톡이 增加되면 이러한 狀態는 더한층 惡化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事態에 대한 恒久的 解決을 그는 敎育과 道德改善에서 求했던 것인데 이를 通해서만 妄想的인 投機事業이 沮止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于先은 國家가 “非雇傭된 可處分貨幣資本”을 適當한 利率로 借入하여 그것을 農業改善 植民地開拓 移民 都市住宅 및 公共施設改善

(84) Tucker, *op. cit.*, p. 172. Malthus은 商人들까지도 利得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資本이 農業에서 製造業으로 移動하면 海外市場에서 競争이 強化되어 價格과 利潤을 下落시킬 것이 아닌가고 생각한 것이다. (*Principles*, pp. 329—31)

(85) Tucker, *op. cit.*, p. 173.

(86) *Ibid.*.

(87) Keynes는 Ricardo理論의 가장 큰 弱點은 貯蓄과 投資를 同一視한 것이라고 보았다. Malthus 역시 蓄積을 貯蓄뿐만 아니라 投資도 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아진다. Tucker, *op. cit.*, p. 135 參照.

등과 같은 遠視的 目的을 爲해 再貸付해 주어야 한다고 提案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貨幣 所得을 增大시키고 現存資本의 生産物에 對한 需要를 刺戟시키는 한편 私的 投機로 因한 經濟的 恐慌을 避하게 된다고 생각했다.⁽⁸⁸⁾

이에 反해 Ricardo 는 모든 租稅는 資本蓄積의 能力을 減少시키고 雇傭과 生産을 制限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既히 利潤이 낮은 國家에서 높은 租稅가 賦課되면 資本의 海外移轉 誘因을 助長하게 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國債利子和 關聯하여 租稅負擔의 問題를 考慮하였던 것인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資本稅(capital levy)를 賦課하더라도 可能한 限 早速히 負債를 清算해버리는 것이 계속 資本輸出의 刺戟을 받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 McCulloch 도 역시 課稅와 穀物條例가 英國의 利潤率이 早期에 下落되는 主要한 두가지 原因이라고 생각하였다.⁽⁸⁹⁾

Ricardo, McCulloch 및 Torrens 등은 英國의 資本이 더 높은 利潤과 利子를 追求하여 英國에서 流出될지도 모른다고 警告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英國資本家들은 英國의 損失을 무릅쓰고 他國의 經濟成長을 助長시켜 주는 代身 英國의 勞動者들은 더욱 困窮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Ricardo 學派의 一員인 William Ellis 는 이러한 見解를 修正하여 海外貯蓄은 收益性있는 投資機會의 展望에 따라 誘因되는 새로운 貯蓄이라고 主張하였다. 英國에 投資되어 있는 資本量은 資本家에 對해 最少限의 收益率을 가져다 주는 모든 雇傭을 이미 充足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減少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反對로 “資本의 輸出行爲는 資本輸出國의 資本을 增大시키는 手段이 될 것이다.” 英國의 貯蓄이 小麥과 其他의 必需品을 더욱 낮은 費用으로 生産할 수 있는 나라에 投資된다면 英國製品에 對해 이와 같은 低廉한 商品은 더 많이 交換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內利潤率은 上昇할 수 있게 될 것이고 資本雇傭의 範圍는 擴大될 것이라고 생각된 것이다.⁽⁹⁰⁾

J. S. Mill 도 資本의 輸出이 매우 有益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英國의 人口가 資本과 같은 比率로 增加한다면 勞動者는 稀少하지 않겠지만 海外로부터의 原料生産物이 더 많이 供給될 必要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需要를 充足시켜 주기 爲해서는 必要한 資本을 英國이 輸出함으로써만 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⁹¹⁾

(88) Tucker, *op. cit.*, pp. 106—7.

(89) *Ibid.*, p. 178.

(90) *Ibid.*, pp. 178—80.

(91) J. 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1848) Edited by W. J. Ashley, London, 1915, pp. 737—8.

한편 Wakefield 는 이미 相當量의 資本이 英國으로부터 流出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는 豊富한 勞動供給을 提供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殖民地의 土地를 無料로 下賜하거나 最少限의 必要價格 以下로 販賣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勞動者들이 土地를 獲得하여 獨立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海外移民을 위한 財政支援의 資金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James Mill 은 그러나 移民의 有用性을 疑問視하였는 바 運送費를 考慮한다면 母國의 國民들은 人口減少에 의해 얻는 利益보다 資本의 損失로 인한 苦痛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92)

또한 J. S. Mill 은 Wakefield 의 原則에 立脚하여 南濠洲에 새로운 殖民地를 設立하는 事業에 同調했다. 이러한 事業은 英國의 賃金과 利潤을 上昇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93) Torrens 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穀物과 原料의 輸入에 대한 制限撤廢 自體만으로써는 長期間의 높은 利潤을 確保하기에는 不充分하다고 생각한데서 殖民地의 必要性이 認識되었다고 보아진다. 英國輸出品의 價格은 海外市場의 需要供給에 의해 決定되는 것이고 生産費에 의해 決定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外國穀物에 대한 英國의 需要가 英國製造品에 대한 海外의 需要보다 더욱 急速하게 成長한다면 海外穀物에 대한 英國商品의 國際交易條件은 점점 더 不利하게 된다는 것이다. 利潤率은 輸出製品의 價格이 그 生産費에 비해 下落됨에 따라 減少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交易條件의 變化는 高率의 資本蓄積과 英國製造品の 急激한 生産增加가 外國의 農業生産增加를 超過함에 緣由하거나, 外國에서 關稅手段에 의해 自國의 幼稚産業을 保護하려는 政策을 取함에 起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에 대한 唯一한 解決은 資本과 勞動을 殖民地에 輸出하여 英國에서 必要한 食糧과 原料를 生産하고 同時에 그의 輸出産業을 위해 새로운 市場을 創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英國은 資本과 勞動의 流出을 規制하고 「殖民地關稅同盟」(colonial Zollverein)을 만듦으로써 自國의 經濟的 運命을 調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94)

VI. 結 言

지금까지 우리는 극히 制限된 範圍에서이긴 하지만 經濟發展과 利子 및 利潤의 相關性

(92) Tucker, *op. cit.*, p. 184.

(93) *Ibid.*.

(94) *Ibid.*, pp. 185—6.

을 考察하고 關係理論과 結付된 政策의 論議를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무릇 諸理論은 當時의 經濟的 現實과 그 問題點을 分析 내지 解決하려는 것으로 反映되거나 試圖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理論이나 政策이든지 空間的 時間的 制約과 各個의 特殊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以上の 論議중에서 現在의 韓國經濟와 關聯性 및 類似性을 갖고 있는 點이 무엇이든 어떠한 點들이 우리에게 參考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考察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筆者의 所見으로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가 특히 關心의 的이 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더한층의 理論的 및 現實的인 論究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선 本稿는 이러한 문제점의 指摘만으로 一俱 끝맺으려는 바이다.

첫째 現在의 韓國經濟狀況에 비추어 본 法定利子率 및 市場利子率의 妥當性과 調整에 관한 問題이며,

둘째 國內產業의 適正利潤率 保障을 위해 現行 低穀價政策 및 外穀導入政策이 과연 不可避하며 必要한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셋째 最近의 長期停滯論에 이르기까지 資本主義經濟의 發展展望에 대한 諸理論에서 보다 綜合的이고 的確한 理論은 어떻게 體系化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各各 獨立的인 論究가 더한층 있어야 할 것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助教〕